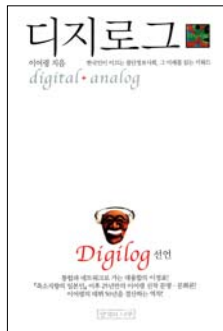


고소득 전문직을 위한 고품격 세일즈 박범수 지음 / 다산북스



전문직이라고 해서 인생을 보장받던 시대는 끝났다.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면서 이제는 전문가들도 고객유치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이에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전문직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고객을 설득할 것인지, 어떻게 스스로의 격을 높이면서도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는 책이 출간됐다. 이 책 '고품격 세일즈'가 바로 그것.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전문직 종사자(변호사·컨설턴트·회계사·엔지니어·건축설계사·디자이너·동시통역사 등)라고 부른다. 특히 저자는, 전문직이라고 하면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불경기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문직 시장의 수요·공급의 구조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파산을 하거나 아예 다른 직업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 따라서 이제 그만히 앉아 있는 한 고객을 찾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고객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객을 확보하고 사업을 성장시키려면, 고객을 직접 대면하여 유일한 상품인 '자기 자신'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고객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관계도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로그(digilog)선언 이여령 지음 / 생각의나무



디지로그(Digilog)는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로 이행하는 과도기, 혹은 디지털 기반과 아날로그 정서가 융합하는 첨단기술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한때 '혁명'으로까지 불리며 떠들썩하게 등장했던 디지털 기술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아날로그적 감성이 다시 각광받고 있는 요즘, 문화평론가인 이여령씨는 이 책을 통해 "이제 디지털의 사이버 문화와 아날로그의 공동체 정서를 이어주는 디지로그 파위가 새로운 희망 키워드로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초기정보사회가 일으킨 IT거품과 부작용을 개선하면서 도래할 후기정보사회의 선두주자로 디지로그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 특히 그는, 지식정보사회가 '나눔'의 사회이며 물질이 아닌 '감동'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받는 사람이 없는 휴대전화, 대화 상대가 없는 메신저는 존재할 수 없듯, 최첨단 디지털 문화도 결국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가 있는 쌍방의 세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후기정보사회로 갈수록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고, 쌍방의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매니페스토의 탄생 카나이타츠키 지음 / 다산초당

-정치권력의 제3의 물결



일본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 각국의 정책선거를 상징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 당선 이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 제도의 시행 현장을 취재하고 그 실상을 밝혔다. 2003년부터 매니페스토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정치기자가 풍부한 취재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의 사례와 함께 일본의 로컬 매니페스토를 분석·평가하여,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서구권에선 1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매니페스토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어떤 발달과정을 거쳐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각국의 정치 환경에 맞추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에서 매니페스토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를 밝혔다. 선거출마를 꿈꾸는 이들을 위해서 부록을 따로 마련하여 완성도 높은 로컬 매니페스토 작성에 필요한 요소를 제시하고, 유권자들에게는 매니페스토 판별법 15가지를 제시해 올바른 공약을 판별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매니페스토 운동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 바람직한 정책선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국내 정치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점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내 인생을 결정짓는 긍정의 심리학 이만규 지음 | 원앤원북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친구 9명을 두고도, 싫어하는 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소모하면서 괴로워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한 명뿐일 때조차도, 그 한 명의 친구를 둔 것에 감사하며 행복해한다. 심리학 박사인 이만규 교수는 이처럼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긍정적인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세상을 보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 결국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진 것을 외면하고 부족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법이다. 이 교수는 바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실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긍정적 삶을 위한 여러 가지 지침들은 누구나 알만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의 판에 박힌 자기 계발서와는 달리 긍정적인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대해 그 원인을 심리학적으로 파헤치며, 나아가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이다. 표정을 바꿔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긍정적인 말을 습관화해 성공을 부르며, 공감과 배려를 실천해 상대방에게 지지를 이끌어내고, 먼저 베풀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긍정의 지혜가 가득하다.

성공을 부르는 승자의 두뇌 스텔라 도모코 지음 / 다산초당



두뇌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활동을 한다.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절망을 느끼게 하면서,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한다. 어떤 물건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만큼은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모두 뇌가 하는 활동이다. 즉 마음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중심이 뇌인 셈이다. 또한 공복을 느끼게 하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느끼게 하는 것도 모두 뇌가 하는 일이다. 그 외에도 서류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 계단 뛰어오르기 등과 같은 우리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의 뇌의 도움을 받은 결과이다. 결국 우리가 뇌를 알고 충분히 활용한다면 업무나 동료와의 교제, 또는 아내나 가족과의 접촉, 비즈니스와 학습문제의 걱정 등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 책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로 고민하는 사람들, 특히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에게 지금보다 두뇌를 원활하게 사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신중하게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건강증이나 집중력이 떨어져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두뇌의 젊음을 유지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저자는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90분 리더십 크리스 브래디, 데이빗 볼초버 지음 / 제이앤북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을 좌우할 최대 고비였던 미국전. 1대 0으로 뒤진 상황에서 히딩크 감독은 황선홍을 대신해서 안정환을 투입한다. 그리고 얼마 후 안정환은 멋진 헤딩슛으로 동점을 만들고 한국팀은 16강에 오를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다. 또한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 안정환은 소속 팀 페루자에서의 한을 씻기라도 하듯 연장전 골든 골로 팀을 8강에 올려놓으며 한국의 반지의 제왕으로 등극했다. 하지만 월드컵 직전만 하더라도, 안정환의 위치는 불안했던 것이 사실. 결국 이와 같은 변화는 히딩크 감독이 그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그를 자국, 적시에 그를 기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선수로 구성된 팀이라도 감독, 즉 경영자에 따라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출발한다.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축구 경기를 지휘하는 감독들의 독특한 리더십을, 축구처럼 단기간에 조직을 극대화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기업 경영에 적용해 풀어 놓은 것. 특히 책에서는 위대한, 혹은 끔찍했던 영국 프리미어 감독들의 성향을 심층적으로 분석, 무엇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고 또한 그들의 스타일과 방법론에서 경영자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자세히 알려 주고 있다.